



# 용산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를 한국공항공사 낙하산 사장에... 용산참사 계승이 국민대통합인가?

## 역대 최악의 낙하산, 박근혜 인사참사의 결정판

끔찍하다. 용산참사의 비극을 이리 쉽게 잊을 수 있는가!  
박근혜 정부는 공기업인 한국공항공사의 사장에 온갖 비난여론에도 불구하고 용산참사 살인진압 책임자 김석기(전 서울경찰청장)를 임명 강행하였다. 김석기의 임명은 부도덕, 부실인사로 문제 많던 박근혜 정권 인사참사의 결정판이다.



## 박근혜 거짓말, '공기업에 비전문가, 낙하산 배제가 원칙'?

박근혜 대통령은 '공기업에 비전문가, 낙하산 인사를 배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공언했다. 김석기에게 도대체 어떤 전문성이 있는가? 철거민을 토끼몰이하듯, 공사 노동자들을 때려잡는 전문성이 필요한가? 어떻게 여섯 명의 국민을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내몬 책임자를 전국 14개의 공항을 운영관리하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힐 수 있는가! 유가족의 절규는, 국민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다는 말인가! 박근혜 정권, 정말 끔직한 정권이다.



## 뻔뻔하다 김석기, 즉각 퇴진하라!

김석기는 지금이라도 스스로 퇴진하고, 유족앞에 사죄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김석기의 임명을 당장 철회하라!  
김석기 임명 철회하고, 공기업 낙하산 인사 비리 내막을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뻔뻔인사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하고, 용산 유가족과 국민들에 대한 모욕인사를 사죄하라.

“끝나지 않은 용산” \_ 이동수 화백



# 서류/면접평가 내부심사 꼴찌, 전문성 평가 꼴찌 비전문, 비도덕, 낙하산 김석기는 퇴진하라!

김석기가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와 면접 심사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아 꼴지였음에도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공항공사 사장으로서 중요한 평가 중 하나인 공항분야에 대한 전문성과 비전 분야에서는 김석기는 다른 후보들 보다 20점 이상이 뒤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해야 할 공기업 임원인사에, 청와대 사전내정 등 인사비리가 있었음이 분명해 졌다.

12 2013년 10월 11일 금요일

사회

## 한국공항공사 사장 김석기, 심사에선 '꼴찌'

임원추천위 서류·면접평가, 3인 중 최하점수 받고도 임명

2009년 "용산학살"의 전담책임자였던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50·사단)이 공사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와 면접 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기도 지난 7일 한국공항공사 사장에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중요한 전문성·비전 분야 1위 후보에 20점 이상 뒤져

"용산 전담직 전담" 강변 노조 등 저지로 출근 못해

기운다 가장 많았다. 공명 비판은 없는 민 의원실과 의. 공항에서 "임원추천위 평가 점수를 하로 참고하지 않고 자체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별 임원추천위원회 심사결과

후보명	평가점수	김석기	500	500
1차 서류심사	6	5	6	6
2차 면접심사	140	138	138	136
비전(비전능력 및 전략적 사고능력 (최고점영차로서의 자질과 능력 포함))	140	132	126	136

2013 10 11 경향신문

## 김석기 퇴진운동에 함께 해주세요

내년 1월이면 용산참사 5주기입니다. 김석기가 공기업 사장인 채로 용산참사 5주기를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공항공사 산하 14개 공항 1인시위를 비롯해, 5주기 전에 김석기를 퇴진 시키기 위한 운동들에 함께 해주십시오.

문의 : 02-3147-1444 / mbout@jinbo.net

## 유가족 따돌리고, 새벽에 옆문으로... 도둑 취임식 국감에서도 허수아비 취급받은 김석기

국민적 비난에 임명 9일 동안 출근조차 못하던 김석기가, 10월 16일 도둑 취임식을 강행했다. "유족들에게 사과했다"고 거짓말하더니, 17일 공항공사 국감에서 당할 창피를 피하기위해, 정문과 로비에서 기다리는 유가족을 고립, 따돌리고, 새벽에 몰래 폐쇄된 옆문을 열고 들어가 강행한, 파렴치하기 짝이 없는 부끄러운 취임식으로 기록되었다. 국감에서도 야당의원들이 김석기를 사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부사장을 상대로 질의했고, 여당도 거의 질문을 하지 않아 김석기는 증인석에서 '허수아비'처럼 앉아 있었다. 참으로 뻔뻔하고, 부끄러움조차 모르는 인간이다.